

임진왜란(1592~1598)과 일본의 삼한(三恨)

김진영*

■ 국문요약

『전경』에서 증산은 일본이 맺은 세 가지 한(三恨, Three Resentments)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삼한 중 첫 번째 한은 당시 일본군은 서울에 들어오지 못하였던 것이고, 두 번째 한은 무고한 인명이 많이 살해되었던 것, 마지막으로 모를 심는 법을 가르쳤던 것이 세 번째 한이다.

대순진리회에 따르면, 일본은 훗날 대한제국을 강제합병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한을 푼다. 두 번째 한은 임진왜란 당시 무고한 인명을 의도치 않게 많이 살상하였음에도 조선의 ‘완전한 점령’에 실패했으나 20세기 초 비교적 큰 인명의 희생을 치르지 않고 식민통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풀리게 된다. 포한(抱恨)의 주체가 주로 피해자에 국한되는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대순진리에서 해원의 대상은 어떤 사건의 가해자나 피해자, 인간이나 신명, 심지어 동물에까지 이른다. 이는 우주 만물의 조화와 운행을 주관하는 주재자로서, 증산의 포용적이며 광범위한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마지막 세 번째 한은 벼농사와 관련된 문명사적 측면에서 조망해보려 한다. 일본은 임란중 이른바 못자리에서 일정 기간 모를 키운 후 본답에 옮겨 재배하는 농법인 이양법을 조선에 전수했는데, 이로 인해 칩락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조선의 농업 생산성만 높여

*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E-mail: staci21@naver.com

주게 된 것이다. 넓게 보면, 벼농사는 인구 증가와 도시화, 경제, 사회의 발전과 문화와 지식의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류문명의 발전을 추동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일본은 사실상 의도치 않게 ‘적국’을 이롭게 한 결과를 초래한 셈이었다. 결국 조선 땅에는 한일합병직전 3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들어 일본의 세 번째 한도 풀리게 된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임진왜란 전후 국내외 정세를 살펴보고, 기 발표된 삼한의 해소 과정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여 보완한다. 아울러, 삼한의 인과(因果)를 문명사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삼한당을 당호로 해석할 때, 이 명칭이 지닌 중층적 의미를 제시한다.

주제어: 임진왜란, 삼한, 삼한당, 조선, 일본, 증산, 『전경』

- I. 머리말
- II. 16세기 조선의 정세 및 대일(對日) 인식
- III. 임진왜란과 일본의 삼한(三恨)
- IV. 맺음말

I. 머리말

우리에게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불변의 묘사에 가장 알맞은 국가이다. 먼저 ‘가까운 나라’라는 명제를 살펴보자. 두 나라의 본토사이의 직선 거리만 보더라도 부산에서 후쿠오카가 220km 정도에 불과하니 역사적으로, 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두 나라간 인적, 물적 교류가 얼마나 빈번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원문에는 일본이 5,535회, 왜(倭)라는 표현이 8,889회 등장한다. 그러나 일본이 이토록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나라에서 ‘먼 나라’로 전락하게 된 데에는 600년이 넘는 역사에서 끊임없이 한반도에 출몰해 많은 피해를 입힌 왜구¹⁾가 한 몫을 차지한다. 호시탐탐 우리 땅을 노리고 수많은 백성의 목숨을 앗아간 왜구는 역설적으로 조선 초기 조정이 적극적으로 통교(通交) 관계를 수립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여말 선초부터 대일(對日) 통교는 가장 큰 위협인 왜구 문제로 인한 민생의 피해를 줄이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가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조선 초기부터 일본과의 교섭(외교)의 제1의 목표는 왜구 금압(禁壓)이었다.²⁾ 1396년 태조는 대마도를 정벌해 속지로 삼아

1) 왜구는 13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한반도와 중국 연안에서 활동한 일본의 해적집단을 지칭한다.

조공을 받거나 필요한 물품을 하사하기도 하였는데, 이른바 강은 양면 정책을 통해 왜적을 통제하려 했다. 대마도를 지렛대로 일본과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정종, 세종대로 그대로 이어졌다. 세종 원년(1419년) 대마도 정벌의 결과, 대마도가 조선의 요구에 순응해 음에 따라 각종 통교제한 정책의 실시가 가능해지면서 외교적 주도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³⁾⁴⁾ 한편, 조선이 중앙집권 체제를 갖춘 것과는 달리 분열되어있던 일본은 천황·쇼군 및 지방의 유력세력 등으로 구성된 복수의 주체들로 인해 통교 체계가 정비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양국간 외교 현안인 왜구의 문제 또한 완전하게 해결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까지 왜구의 노략질은 많이 줄어들었다.

사학계 일부에서는 일본과의 통교 전개 상황을 조선 초기부터 임진왜란전까지 총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제1기는 왜구금압정책이 주를 이룬 태조 원년(1392)부터 세종 원년(1419)까지이며, 제2기는 통교체제의 확립기로서 세종 2년(1420)부터 성종 2년(1471) 대마도정벌 이후의 시기가 포함된다, 제3기는 대일 통교 체계의 모순이 드러나고 정책적 혼란과 쇠퇴로 인해 통교가 사실상 단절의 수순으로 갔던 성종 3년(1472)부터 선조 25년(1592), 즉 임진왜란 직전까지로 분류하고 있다. 조선의 역사에서 임진왜란은 정치, 경제, 사회, 사상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한 사건이다.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듯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참혹한 고통을 안겨준 이 전쟁의 시발점은 무너진 대일 통교가 하나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경』에 보면, 증산은 직접 임진왜란이나 이항복, 이순신, 이이, 천곡, 사명당 등 전쟁과 관련한 인물들을 여러 차례 바 언급한 바 있다. 호국정신으로 전쟁에 용감히 맞섰던 수많은 인물에게서 단편적이거나

2) 《우리역사넷》, 「조일국교의 재개」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nh/view.do?levelid=nh_022_0030_0040_0010_0020, 2023. 7. 28. 검색).

3) 김일환, 「세종대 대마도정벌의 군사적 전개과정」,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1-2 (2012), pp.92-139, p.132.

4) 주노중, 「조선의 대마도통치 전략과 일본과의 평화외교의 전략 고찰」, 『동북아경제연구』 26-4 (2014), pp.117-148.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는 혼란 가운데서도 피어난 영웅적 리더십과 백척간두에 선 조국을 구하기 위한 고뇌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 특히 대일 통교의 문제나 조선 내부의 정치적 혼란과 같은 전쟁의 간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조선 초기만 해도 왜구를 적절히 통제하고 대일 통교 관계를 수립하여 통신사를 파견하는 등 양국간 소통이 비교적 원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갈등 요소로 인해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문이 커진다. 특히, 15세기까지만 해도 다면적이고 유동적이었던 대일 인식이 변화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일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국가간 전쟁에는 당사국만의 갈등이 아니라 국제 정세의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본 고에서는 임진왜란이후 43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가깝고도 먼 나라로 남아있는 일본을 바로 알고, 다양한 층위에서 발생하는 두 나라간 갈등을 분석하여,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전경』에 묘사된 일본의 삼한을 문명사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삼한당의 중층적 의미를 모색해보려 한다.

II. 16세기 조선의 정세 및 대일 인식

개국이후 조선은 안으로는 민심을 수습하고 대외적으로는 왜구 문제의 해결을 급선무로 보았다. 왜구들은 고려말부터 15세기 중반에 이르는 약 100년 동안 적게는 수십 척에서 많게는 500척이 넘는 대선단을 이끌고 침탈에 나섰다. 왜구의 규모는 고려말에 이미 정규군과 대항할 수 있는 전력으로 커져서 더 깊은 내륙으로 천도까지 논의될 정도였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어도 왜구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⁵⁾ 조선 조정은 해상 방어를 위해 수군의 관직을 설치

하고 직제를 개편하였으며, 병선을 건조하거나 수리하여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한편으로 사자를 파견하거나 투항한 왜인에게 토지와 식량, 집 등을 하사하고 관직을 제수하는 등의 회유책도 병행하는 등 다양한 회유책을 펴기도 했다.⁶⁾

15세기초 명나라의 공인으로 조선과 일본간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 이후 양국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통신사행이다. 기본적으로 일본 국정 탐색이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 통신사는 명나라의 왜구 단속에 대한 요청이나 새로운 쇼군의 즉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세종이후 지속 되어 온 통신사행은 16세기초 사행중 벌어진 해상 조난과 일본의 내란 상황이라는 일본의 국내 사정으로 인해 번번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조일간 외교 관계의 수립으로 왜구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자 통신사행을 정례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려 한 조선의 기대와 달리 막부의 통교자로서의 일본 국정 장악 능력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선이 통교의 대상을 막부 이외 대마도주와 구주지방 세력까지 다원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통신사행은 임진왜란 직전인 1590년 선조 23년을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까지 대일 외교 전반을 점검하고 대일본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⁷⁾

조선전기까지 다소간의 입장차는 있었으나 왜구 문제와 명나라 견제라는 공통의 의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던 조선과 일본, 양국의 비극적 전환점은 1590년 선조 23년 파견된 통신사로부터 비롯된다. 16세기 말 일본을 통일하며 등장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마도주에게 조선에 일본국왕의 교체를 고하고 통신사 파견을 압박하였다. 이에 대마도주는 두 차례에 걸쳐 가짜로 일본국왕사를 내세워 통신사 파

5) 손순철, 『『해동제국기』를 통해 본 15세기 조선지식인의 동아시아관: 약탈의 시대에서 공존, 공생의 시대로』, 『사립』 41 (2012), pp.2-3, 학자들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고려말까지 적게는 370여 회에서 많게는 530회까지 왜구의 침구를 기록하고 있다.

6) 한문중, 「조선전기 일본인의 항화(向化)와 정착」, 『동양학』 68 (2017), p.3.

7) 장순순, 「조선전기 통신사행과 대일외교(對日外交)의 특징」, 『한일관계사연구』 56 (2017), pp.85-90 참조.

견을 요청하였는데, 처음에 조선 조정은 ‘제 임금을 친 역적’이라 하여 히데요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마침내 선조 22년 통신사 파견을 결정하였다.⁸⁾ 국내 통일에 성공한 도요토미는 통일후 제후(諸侯)들의 강력한 무력을 다른 나라로 돌려, 국내 정세를 안정적으로 수습하고 신흥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대륙 침략의 야욕에 불타게 되었다.

조선은 연산군이후 사림 세력간 계속된 정쟁으로 당쟁이 격화되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울 정도였으며, 사회 시스템의 붕괴로 국가 제정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군사력도 쇠락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국방 체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쉽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조선 전기만 해도 불교나 무속, 도교를 비롯해 주자의 정통 성리학이 아니라 더라도 사상적 포용력이 있었던 사대부들은 성리학이 차츰 국가적 이념으로 공고히 자리잡게 되면서 숭명의식에 사로 잡혀있었다. “조선은 지리적으로 중국 밖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문화적으로는 중화문명의 범주 안으로 스스로를 치환하였으며, 따라서 ‘작은 중국’, 즉 소중화로 규정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다.”⁹⁾ 반면, 조선은 군신의 예로 대한 명나라와는 달리 일본에 대해서는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평화를 위해 일본과 정상적인 통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통신 사행이었으나 임진왜란전 마지막 통신사행의 부사 김성일의 서한에 나와 있듯이, “오랑캐”, “하찮은 추물”, 심지어 “개돼지”와 같은 격한 표현으로 일본을 깎아내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일본을 ‘예의도 모르는 미개한 변경국’ 정도로 여긴 것은 김성일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 사림의 통념과 다르지 않았다. 이는 조선 지도층의 대일 관계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 16세기말 중종반정이후 기묘사화와 을사사화를 거쳐 조정의 권력 중심부로 떠오른 척신들의 비리는 명종에서 선조로 왕권이 바뀌어도 근절되지 않았다.

8) 김정신, 「16세기말 성리학 이해와 현실인식: 대일외교를 둘러싼 허성과 김성일의 갈등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3 (2000), p.4.

9) 김진영, 「한류를 통해 본 소중화(小中華)에서 대중화(大中華)로의 노정」, 『대순중학』 2 (2022), p.123.

선조가 즉위한후 사림세력은 다시 정치세력의 핵심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한 혁신을 지향하였으나 선조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왕이었다. 선조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서 정치, 사회 전반의 경장(개혁)¹⁰⁾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1575년 즈음에는 척신정치를 비롯한 구습을 타파하는 방식에 대한 사림간 이견으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른바 조선 정치의 당쟁과 봉당정치의 시작이다. 사림세력의 분열은 견제와 균형을 넘어 자신이 속한 봉당의 이익을 대변하고 상대방 봉당을 무조건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행태로 발전해 일본 통신사행과 같은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도 사사로이 대립하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2년 전인 1590년 선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을 받은 대마도주의 요청으로 통신사의 파견을 결정하고 서인 황윤길, 동인 김성일, 서인 허성을 정사, 부사, 서장관으로 차출하였다. 이들은 8개월여에 걸친 일본 사행에서 복장 문제부터 의전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대립하였다. 결국 1591년 조선으로 돌아온 통신사 일행은 정반대의 보고를 하게 된다. 황윤길은 그간의 실정과 형세를 치계(馳啓)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담과 지략이 있는 비범한 인물로 묘사하면서 병화(兵禍)가 있을 것으로 우려한 반면 김성일은 그를 쥐에 비교하며 소인에 불과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이는 김성일이 일본에 갔을 때 황윤길 등이 겁에 질려 체모를 잃은 것에 분개하여 말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말한 것이었다.”¹¹⁾ 조정 대신들은 이들의 상반된 보고에 의견이 분분하였다. 산적한 국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조선 조정은 결국 후자의 의견에 손을 들어 주었고, 이에 따라 각도에 명하여 성을 쌓는 등 방비를 서두르던 것마저 중지하고 말았다. 김성일은 자신의 사감과 당시 조선 사대부의 대일본 편견으로 인해 그릇된 보고를 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정 전체가 국가의 전방위적 폐

10) 정치, 사회적 적폐를 해소해야 한다는 개혁안을 지칭하는 유교 용어.

11) 『국조보감』 권30, 선조 24년.

단과 기강해이로 무력감에 빠져 일종의 집단적 방어기제를 통한 합리화¹²⁾에 정세를 오판한 것이 결국 비극의 시작점이 된 것이다.

비슷한 시기 명나라는 일부 친번¹³⁾ 세력이 국가가 주는 봉록이 적다며 반란을 일으키는 등 종실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엄청난 국고의 고갈이 초래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몽골과 왜구가 발호하여 끊임없이 명나라를 괴롭혔다. 이러한 외환(外患)의 원인에는 일본의 은(銀) 생산이 급증하면서 중국과 유럽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교역로가 이루어진 데 있었다.¹⁴⁾ 이로 인해, 대항해시대의 흐름을 타고 동남아까지 진출한 포르투갈 상인 및 중국 상인들까지 왜구와 결탁하여 무역의 이익을 놓고 다투었다. 이들은 무장 거함을 건조하여 밀무역을 벌이거나 약탈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명나라는 해금 조처를 더더욱 엄중히 하고 관리를 내보내 왜구 소탕과 밀무역 차단 의무를 맡겼으나 역부족이었다. 이후 공권력의 공백 속에 왜구는 더욱 창궐하게 되었다.

명나라는 1570년대에 들어서야 왜구의 발호가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몽골과의 화의를 통해 ‘북로남왜(北虜南倭)’¹⁵⁾의 위협에서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으로 일어나는 잦은 외침을 막기 위해 명나라는 군사력 유지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재정 파탄을 불러왔다. 결과적으로 임진왜란 직전 동아시아는 명중심

12) ‘방어기제’란 개인을 감정적인 갈등이나 내부적, 또는 외부적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심리과정. 합리화는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각, 행동 또는 감정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통해 안심시키거나 자기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감정적 갈등이나 내부 또는 외부 스트레스 요인을 처리하도록 허용한다. Mariagrazia Di Giuseppe and John Perry, “The Hierarchy of Defense Mechanisms: Assessing Defensive Functioning With the Defense Mechanisms Rating Scales Q-Sort,” *Frontiers in Psychology* 12 (2021), p.1 참조.

13) 친번 제도도, 적장자만 태자로 책봉되고 나머지 황자들은 군왕으로 봉해지거나 장군으로 책립되어 평생 녹을 받았다. 임진왜란 직전에는 종실의 숫자만 2만 8천 명이 넘어서 국고의 고갈을 초래한 원인중 하나가 되었다.

14) 명나라는 몽골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정 조달이 필요했는데, 이로 인해 은의 수요가 폭증하였다.

15) ‘북로남왜’는 북쪽의 몽골족, 남쪽의 왜구를 일컫는 말이지만 조선에서는 몽골족의 침략 대신에 압록강, 두만강 주변의 여진족의 준동을 오랑캐라고 하여 ‘북로’에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김현영, 「16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왜란 전후 조선사회의 변화」, 『한국사학사학보』 26 (2012), p.94.

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시기였다. 반면, 은을 통한 무역으로 유럽식 화기와 염초 등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차곡차곡 확보하고 있었던 일본은 전국시대를 거치며 축적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신식 무기를 사용하며 전쟁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었다. 이와 달리 조선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문치(文治)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명나라를 부모국(패권국)으로 의지해 오로지 명의 적자(嫡子)라는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조선은 사대에 함몰돼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전쟁의 참화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과 다르지 않았다.

III. 임진왜란과 일본의 삼한(三恨)

16세기 후반 일찍이 국제 무역에 눈을 뜨고 유럽의 문물과 접했던 일본은 새로운 군사기술을 받아들였다. 1590년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은 물론이고 중국을 복속시키고 아시아 전역을 하나의 체계로 지배하려는 야망을 불태우게 된다. 조선 침략은 아시아 전체를 손아귀에 넣는 첫 단계였다. 7년간의 전쟁은 선조와 광해군 당대에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와해되는 전방위적 피해를 초래한 것은 물론 조선 후기부터 말기까지의 왕조의 전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사실 우리 역사에서 이민족의 외침에 맞서 벌어진 전투나 전쟁은 무수히 많았으나 임진왜란만큼 통시적으로 대부분의 현대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에 영향을 준 전쟁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임란기는 수많은 위인이 나타난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임진왜란의 호국영웅 이순신은 세종대왕이나 일제강점기 항일투사들을 제치고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매번 조사될 정도이다.¹⁶⁾ 국민 대부분이 임진왜란은 선조를 비롯한 조정의 무능 때문에 발발했으며, 한 달 만

에 한양이 함락되는 와중에 선조는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고, 왜적의 무참한 살육과 약탈 앞에 무수히 많은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치욕의 전쟁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나마 전쟁의 종식도 명나라 장수 이여송의 참전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으로 얻은 패배와 다름없는 전쟁으로 인식한다. 다시 말해, 전쟁의 인과(因果) 관계보다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 피어난 박애주의, 애민정신, 용기있는 저항과 희생정신과 같은 인간 중심의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다.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의 인물들의 행적이나 내적 고뇌에 대한 기록이나 스토리는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드라마, 영화와 같은 대중미디어로 제작되는 것은 물론 역사적 의미를 지닌 문화유산으로서 2013년 이순신이 일기 형식으로 쓴 『난중일기』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서애 유성룡의 『징비록』 역시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앞두고 있다.¹⁷⁾

전술한 바처럼, 한국인 대다수가 임진왜란을 민족적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패전’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적어도 일본의 입장에서는 승리한 전쟁이어야 한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일본이 전쟁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면 실패한 전쟁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영토 확장의 측면에서, 가도입명(假道入明)을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했으나 명나라는커녕 조선 영토의 일부분도 점령하지 못하였고, 둘째, 명과의 무역을 재개하고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일본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일본의 기대도 물거품이 되었다. 즉, 교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선점하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국내 영주들의 불만을 대외적으로 해소해 국내정치 안정을 도모하려던 시도, 그 어느 것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전쟁을 통해 많은 조선의 문물을 약탈하였지만, 이것이 침략의 주된 목표는 아니었다.¹⁸⁾ 일본은 무리한 전쟁으로 민생은 피폐해졌고,

16) 한국갤럽, 「갤럽리포트, 한국인 좋아하는 40가지[사람편]: 2004/2014/2019년 비교」, (2019).

17) 우리나라는 세계기록유산에 총 18건을 등재했는데, 전쟁과 관련한 기록으로는 『난중일기』가 유일하다.

군사 중에는 배고픔을 못 이겨 조선에 투항하거나 죽은 자도 많았다. 한편 일본 국내에서는 혼란을 틈타 봉건 제후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가운데 전쟁의 당사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정권이 교체되었다.¹⁹⁾ 그는 조선 침략에 반대해 왜란중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정권을 잡자 조선과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였다.

전장(戰場)이 되었던 조선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막대한 국력을 소모하여 사회 체제의 붕괴를 피할 수 없었다. 민심은 이반하여 곳곳에 민란이 일어났으며 기근과 전염병의 창궐로 백성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토지는 전란 이전에 비해 20%가 줄어들었다.

명(明)나라 역시 전쟁의 부작용을 극심히 겪게 되었다. 명은 은(銀)을 통화로 사용했는데, 전란이후 은 부족으로 재정 파탄에 시달렸다. 그 결과, 경기가 극도로 침체하게 되면서 이곳저곳에서 난이 일어났다. 명나라 조정은 농민 반란과 변방 소수민족의 봉기를 진압할 군비 확충에 실패하고, 결국 만주의 누르하치 이끄는 청(淸)에 의해 왕조 교체가 가속화하게 되었다.

이처럼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3국 어느 쪽도 얻은 것이 없는 상처뿐인 전쟁이었다.²⁰⁾ 전쟁은 살육, 강간, 약탈, 피랍 등 패전국 백성의 고통은 말할 나위도 없거나와 승전국이라 해도 전쟁에 민중이 동원되고 군수물자 공급을 위해 민생은 참담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에서, 증산이 왜 선천세상의 ‘웅패의 술(術)’에 대해 비판하고, 생명을 살리는 ‘성웅’의 시대가 될 것을 주장했는지 역사를 통해 깨달을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우리 국민은 당시 권력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호국영웅이나 민초들에 대한 존경과 연민의 감정이 내재된 양가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 대순진리회의 『전경』에 나와

18) 《동북아역사넷》, 「동아시아의 역사: 제4장 국제질서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http://contents.nahf.or.kr/item/level.do?itemId=eadeah>, 2023. 7. 15. 검색.

19) 윤여석, 「임진왜란 전후 대중관계의 정립과 의주의 위상」, 『지역과 역사』 41 (2017), p.130.

20) 정구복, 「임진왜란의 역사적 의미: 임진왜란에 대한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 2 (2005), pp.188-190.

있는 증산의 임진왜란과 관련한 어록에서 일본은 오히려 임진왜란을 통해 삼한을 뺏게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특징적인 것은 통상적으로 한을 품는 주체는 주로 피해자인데 반해, 증산은 가해자인 일본을 한을 뺏은 주체로 보았다는 점이다.

『전경』예시 74절에는 증산이 종도들에게 일본이 뺏은 삼한에 대해 언급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증산은 당시 왜군은 서울에 들어오지 못하였던 것이 첫 번째 한이고, 두 번째 한은 무고한 인명이 많이 살해되었던 것, 마지막으로 모심는 법을 가르쳤던 것이 세 번째 한이라고 말한다.²¹⁾ 선조실록에는 왜의 침략후 불과 20일 만에 도성이 함락되고, 선조 일행은 새벽에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가운데 쫓기듯 도망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²²⁾ 여러 공사의 과정에서, 증산은 ‘인간’이나 ‘신명’의 이동이나 동태, 또는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청국에 있는 황극신²³⁾이나 서양으로 넘어가 있던 도통신(道通神)²⁴⁾을 다시 조선으로 불러들여 공사를 진행한다거나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 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진다²⁵⁾는 언급에서 신명의 이동이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기제임을 알 수 있다.

21) 『전경』, 예시 74절, “또 지난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공치 못하고 도리어 세 가지의 한만 뺏었으니 소위 삼한당(三恨堂)이니라. 첫째로 저희들이 서울에 들어오지 못함이 한이요, 둘째는 무고한 인명이 많이 살해되었음이 두 한이요, 셋째는 모 심는 법을 가르쳤음이 삼한이라.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여 저들이 먼저 서울에 무난히 들어오게 됨으로써 한이 풀리고, 다음 인명을 많이 살해하지 아니함으로써 두한이 풀리고, 셋째로는 고한 삼년(枯旱三年)으로 백지 장산(白地江山)이 되어 민무 추수(民無秋收)하게 됨으로써 삼한이 풀리리라.”

22)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30일 기미 1번째 기사.

23) 『전경』, 공사 3장 22절, “황극신이 이 땅으로 옮겨 오게 될 인연은 송 우암(宋尤庵)이 만동묘(萬東廟)를 세움으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하시고 밤마다 시천주(侍天呪)를 종도들에게 염송케 하사 친히 음조를 부르시며 ‘이 소리가 운상(運喪)하는 소리와 같도다’ 하시고 ‘운상하는 소리를 어로(御路)라 하나니 어로는 곧 궁왕의 길이라. 이제 황극신이 옮겨져 왔느니라’고 하셨도다...”

24) 같은 책, 권지 2장 37절, “상제께서 하루는 종도들에게 「진묵(震默)이 천상에 올라 가서 온갖 묘법을 배워 내려 인세에 그것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김 봉곡(金鳳谷)에게 참혹히 죽은 후에 원(冤)을 품고 동양의 도통신(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 계발에 역사하였나니라. 이제 그를 해원시켜 고국(故國)으로 데려와서 선경(仙境) 건설에 역사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25) 같은 책, 교법 3장 2절, “천지에 신명이 가득 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 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

또한 증산은 종도들을 비롯한 주변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다양한 공사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왕이 빠져나간 한양은 더 이상 왕기(王氣)가 머물지 않으며 선조의 피난처였던 의주가 잠정적으로 ‘서울,’ 즉 새로운 도성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명나라 군대가 파병되어 일본은 의주 입성 직전 후퇴하면서, 선조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다. 일본은 훗날 대한제국을 강제합병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한을 풀게 된다. 순종은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비롯한 매국 권신들과 일본의 압력으로 결국 1910년 8월 29일, 순종은 일본왕에게 합병을 청하는 방식으로 국권을 넘겨 주게 된다. 그 결과 일본은 서울에 무혈입성해 1916년부터 1926년까지 경복궁의 근정전과 광화문의 중심선에 조선 총독부 청사를 비롯해 경성부청, 조선신궁 등과 함께 식민지 경관을 완성하면서 식민 통치를 가속화한다.

두 번째 한은 임진왜란 당시 무고한 인명을 의도치 않게 대량살상 하였음을 의미한다. 당시 100만 명이 넘는 조선인 인명피해와 10만여 명이 포로가 되었다는 사료를 고려하면, 조선의 ‘완전한 점령’에 실패했음에도 인명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것을 포한(抱恨)의 이유로 들고 있다. 대순진리회 일각에서는 무고한 인명의 주체를 조선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원을 품는 주체는 ‘피해자’라는 통념적이며 지엽적인 입장에서 한결을 벗어나 다소 관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일본군 역시 전체 전력의 최소 40% 이상이 피해를 입은 역사적 사실을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임진왜란 과정에서 일본군의 참전 병력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다수의 사료에 따르면 일본군 참전 병력수를 15만 8,700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최대 29만 명까지 참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사자 수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의 약 44%에서 60%가 넘었던 것으로 조사된다.²⁶⁾ 1592년 전쟁 발발 이후부터 1598년

26) 박희봉, 「임진왜란에 관한 새로운 증거와 의미: 참전 일본군 및 손실자 수」, 『국가정책연구』 28-4 (2014), pp.2-20.

이순신의 전사를 초래했던 노량해전까지 조선 수군은 수천 명의 인명 손실이 있었지만 왜군은 노량해전에서만 200여 척이 격침되어 최소 3만여 명의 일본 수군도 수장되었다는 기록도 있다.²⁷⁾

한편, 이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살육전에서, 증산은 침략자였던 왜군 역시 해원 대상으로 보고 있다. 전술한 것처럼, 포한(抱恨)의 주체가 주로 피해자에 국한되는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대순사상에서 해원의 대상은 어떤 사건의 가해자나 피해자, 인간이나 신명, 심지어 동물에까지 이른다. 이는 우주 만물의 조화와 운행을 주관하는 주재자로서, 증산의 포용적이며 광범위한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어쩌면 주군이 일으킨 전쟁에서 불가항력으로 끌려와 낮은 땅에서 죽은 자들 역시 윤리적 측면에서 보면, 가해자이기도 하다. 해도 억울하고 무고한 생명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들의 해원은 ‘만고의 원을 풀고 상생의 도’를 이루어 새로운 후천을 열기 위한 중요한 행위이다.

조선 조정은 1910년 일제의 통치가 시작되기 전까지 강화도조약, 을사늑약 등 외교권을 침탈당하며 군사, 경제, 정치적 압력에 무력하게 무릎을 꿇었다.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관리들의 부패와 친일 행각, 왕실의 무능, 이에 따른 체제 붕괴와 기강 해이 등이 전방위적으로 겹친 결과였지만 조선은 사실상 나라를 고스란히 일본에 넘긴 것과 다름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청일간, 러일간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르며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에 비해, 일본의 입장에서만 보면, 큰 인명피해 없이 비교적 수월하게 조선의 주권을 침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일제강점기 36년간 항일운동이나 강제징용 또는 징병으로 인해 조선은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으나 양국간 직접적인 전쟁을 통한 살상 목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무력침공으로 인한 임진왜란의 인명피해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로서는 불행한

27) 이종화·윤현식, 「노량해전의 조명연합수군 규모」, 『군사』 126 (2023), pp.89-91.

근현대사의 시작이었으나, 이렇게 일본은 상대적으로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치르지 않고 식민통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두 번째 한도 풀리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일본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반도’라는 물리적 공간의 상하부(上下部)인 ‘하늘과 땅’을 비롯해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과 식물을 차지하고, 인간과 인간의 활동을 모두 통제하고 강제함으로써 한을 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 한의 해소는 인간의 존재와 우주의 상호작용, 자연의 법칙과 조화 등을 강조하는 핵심 개념인 ‘천지인(天地人)’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에는 ‘3’을 매개로 모든 대립을 하나로 아우르는 천지인 합일, 회삼귀일, 삼일 원리의 독특한 사유²⁸⁾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첫 번째 한의 해소 과정에서 지형, 기후, 생물과 같은 자연적 요소와 역사, 문화, 산업과 같은 인문적 요소가 깊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동안 한반도의 문화, 역사, 언어를 비롯해 다양한 측면에서 훼손 및 왜곡이 자행되었다. 예를 들면, 노동력 착취를 위한 강제징집, 강제징용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자라는 작물부터 삽살개,²⁹⁾ 범과 같은 동물 및 자연유산, 고서, 그림, 공예품 등의 유형문화재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산을 수탈하였다.³⁰⁾ 일본이 산속만이 아니라 깊숙한 섬 속까지 살살이 뒤졌고 또 바닷속까지 측량하였다³¹⁾는

28) 김주미, 「해 속의 삼죽오를 통해 본 ‘3’의 의미 고찰: ‘해 속의 삼죽오’와 한국 사상에 반영된 천지인 합일 사상」, 『고조선단군학』 25 (2011), p.123.

29) 《문화재청》, 「경산의 삽살개」 (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1363703680000&pageNo=1_1_1_1, 2023. 9. 10. 검색), ‘귀신과 액운을 쫓는 개’라는 뜻을 지닌 삽살개는 이름 자체도 순수한 우리말로서 가사(歌詞), 민담, 그림 속에 자주 등장한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전쟁에 필요한 가죽 공급원으로 삼아 많은 수를 죽임에 따라 그 수가 급격히 줄어 멸종의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고유 혈통 보존을 위해 천연기념물 제368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30) 《시사저널》, 「일본 약탈 문화재 ‘망향의 한’」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852>, 2023. 9. 20. 검색),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간 문화재는 모두 14만여 점으로 집계되는데, 그중에 절반 가까이 6만 6천 점 정도가 일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개인소장 등 비공식적으로 일본에만 30만여 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를 전담하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 6만7708점 중 환수된 것은 지금까지 6481점에 불과하다.

증산의 언설에서 우리 국토와 영해까지 침탈하려는 일제의 치밀함이 드러난다. 심지어 공간적 훼손의 사례로 전국에 산재한 조선신사 그리고 철도(도로)나 쇠말뚝에 의한 단맥(斷脈), 경복궁을 비롯한 조선궁궐의 훼손 등이 있는데, 학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한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풍수적 의도’를 가지고 자행된 ‘풍수침략’으로 규정하기도 한다.³²⁾

마지막 세 번째 한은 벼농사와 관련된 문명사적 측면에서 조망해보려 한다. 일본이 이른바 못자리에서 일정 기간 모를 키운 후 본답에 옮겨 재배하는 농법인 이양법³³⁾을 조선에 전수했다는 것이다. 여러 사료에 따르면, 조선의 일부 지역에서 이양법이 이미 실행되고 있었지만, 임란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일본은 침략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조선의 농업 생산성만 높여 주게 된 것이다.

아시아인의 대부분이 주식으로 삼고 있는 쌀은 매우 상호 의존적인 작물이다. 전근대시대 벼농사는 밀과 같은 건조지(dryland) 작물에 비해 훨씬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에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정착하게 되었다. 우임금³⁴⁾ 설화에서 보듯이, 국가가 농사에 필수적인 물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가, 즉 국가의 치수 역량이 매우 중요하였다. 홍수 통제나 관개 시스템 운영은 작물에 대한 물 공급을 조절할 수 있게 해 주며, 건조 지역에서도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식량 생산성이 증대되며, 관개 시스템은 날씨

31) 『전경』, 교법 3장 39절, “...상계에서 이렇게 이르시니라. 「일본인이 산속만이 아니라 깊은 산 속까지 살살이 뒤졌고 또 바다 속까지 측량하였느니라」...”

32) 박성대, 「일제 강점기 한반도의 공간훼손과 풍수정치: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56 (2020), p.115.

33) 이양법은 직파법에 비해 단위 면적당 산출량이 많고 재조작업이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그러나 흙 가뭄이 심한 조선에서 이양법의 확산은 쉽지 않았고, 신기술이라 할 수 있는 마른 못자리 기술, 즉 건양법을 전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성수, 『상생의 길』, 장간호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4), pp.107-109 참조.

34) 순임금의 명으로, 홍수를 잘 관리하여 많은 백성을 구제하였다. 13년간 집 밖의 일터에서 지내면서 치수사업에 헌신하였고 훗날 중국 역사상 최초의 왕조 국가였던 하(夏)나라의 시조가 되었다. 전성기, 「치수(治水)로 백성을 구한 우임금」, 『대순회보』 191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7) 참조.

변동에 따른 농업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일관된 수확량을 보장할 수 있다. 이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인구 증가로 이어진다. 풍부한 식량 공급은 어떤 문명이든 성장과 지속 가능성의 기본 요소이다.

광의적으로 보면, 벼농사는 인구 증가와 도시화, 경제, 사회의 발전과 문화와 지식의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류문명의 발전을 추동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쌀과 관련해 문화지리적 특성중 흥미로운 것은 과거 벼농사가 노동집약적이다 보니 노동 교환을 위한 규범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서양이 인간의 이성과 개인의 자유 및 자아 실현, 인권의 가치를 강조하는 데 비해 아시아는 전통적으로 개인보다는 우주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며, 철학적, 윤리 도덕적 가치를 지향하고 인간의 내적 성장을 추구해왔다. 이는 밀을 재배하는 서양보다 벼농사를 주로 하는 아시아의 도덕 규범이 더 엄격하며, 벼농사가 도덕률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사회로의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동양의 벼농사와 서양의 밀농사를 비교할 때, 벼농사 지역에서의 노동 교환은 더욱 결속력이 있었으며, 밀농사의 경우 농부들의 결속력은 느슨한 대신 수확철에는 추수감사절 축제와 같은 행사를 통해 결속을 다졌다고 한다.³⁵⁾ 이러한 연구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농사가 인류의 문화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시사한다.

1994년 충청북도 청주 소로리에서 발견된 볍씨, 일명 ‘소로리 볍씨’가 방사선 탄소연대 측정결과, 중국보다 무려 3천 년이 앞선 세계 최초의 볍씨³⁶⁾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반도가 문명

35) Thomas Talhelm and Alexander S. English, “Historically rice-farming societies have tighter social norms in China and worldwid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7-33 (2020) pp.19816-19824.

36)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볍씨는 중국 화북지방에서 발견된 것으로 1만 500년 전으로 기록돼 왔는데, 그보다 3000여 년이나 앞선 소로리 볍씨가 발견됨으로써 전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청주소로리볍씨》 (<https://www.cheongju.go.kr/sorori/index.do>, 2023. 7. 30. 검색) 참조; 이용조·우종윤, 「청주 소로리 볍씨의 오늘과 내일: 소로분교를 박물관으로」, 『박물관학보』 38 (2020), pp.263-270.

의 발상지중 하나로, 원시반본(原始返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시종(始終)’의 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벼농사의 발신지일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에 개선된 농업 기술까지 전수하게 된 일본은 사실상 의도치 않게 ‘적국’을 이롭게 한 결과를 초래한 셈이었다. 따라서, 증산이 언급한 세 번째 ‘한’의 인과는 단지 ‘식량의 증산(增産)’이라는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문명사적으로도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결국 조선 땅에는 한일합병전 3년 동안 (1908~1910)³⁷⁾ 극심한 흉년이 들어 “고한 삼년(枯旱三年)으로 백지강산(白地江山)이 되어 민무추수(民無秋收)”한다는 증산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다.

IV. 맺음말

한일간 하루에도 수만 명이 오가는 시대가 도래했지만,³⁸⁾ 대다수 한국인의 인식 속에 일본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근현대에 들어와서도 일본은 식민통치로 또다시 한국인에게 고통을 안겼으며, 틈만 나면 독도 찬탈을 시도하고,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위상을 애써 부정하고 견제한다. 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터져 나오는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망언과 역사 왜곡은 반일 감정의 불씨를 끊임없이 되살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심지어 스포츠에서도, 아니 ‘가위바위보’도 한일전만큼은 절대 지면 안 되는 것

37) 한일합병 직전인 1908년부터 1910년 사이의 3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인 가뭄으로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는 대한매일신보의 기록이 있다. 「Q&A 게시판: 삼한당(三恨堂)」, 『대순회보』 78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7), p.56 참조.

38) 2023년 9월 한달간 일본인 269,376명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전체 국가중 1위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인은 559,029명이 일본으로 출국해, 역시 1위를 기록하며 양국의 인적교류가 코로나이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월보』 9월호 (2023), pp.7-9 참조.

이 불문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러한 반일의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자연스럽게 용인되는 한편 역설적으로 일각에서는 광복 후에도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친일파, 혹은 일본 극우 자본의 장학생들, 이른바 자칭 타칭 실용주의의 가면을 쓴 신(新)친일파들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문제는 대한민국을 여전히 ‘이념과 격정(激情)’이 혼재한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120여 년 전 증산의 입장은 어땠을까? 그는 천지운행의 주재자로서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로 임진왜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삼한의 해소’가 우주적 차원에서 작동되는 해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 과정은 16세기 임란에서부터 20세기 우리 민족이 겪은 일제강점기까지 통시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증산은 일본이 맺은 ‘세 개의 한’을 가리켜 삼한당이라 지칭하면서, 마치 ‘당호(堂號, 집에 붙이는 이름)처럼 호명하였다. 주지하듯이, 옛 사대부들은 이름을 중시하여 호(號), 자(字), 함(銜) 등 여러 개의 성명을 사용하는 일이 흔하였고, ‘당호’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아 집주인의 정체성이나 추구하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이름으로 고심하여 지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본의 입장에서, ‘삼한당’이라는 이름은 결코 선호할만한 당호는 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일단 이름이 지어진다는 것은 ‘고유명사’가 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삼한당’이 단지 ‘세 가지의 한’이라는 뜻인지 ‘(세 가지의) 한이 깃든 공간’ 즉 ‘일본’을 의미하는 말인지 알 수 없다.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삼한당’을 당호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현재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늘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한일간의 외교 관계는 당호가 의미하는 바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증산은 “일본의 지기가 강렬하므로 그 민족성이 탐욕과 침략성이 강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일삼는다”고 말했다.³⁹⁾ 그의 주장

39) 『전경』, 공사 3장 31절, “... 일본 신호(神戶)에 큰 화재가 났다는 신문 보도를 들

을 증명하듯이, 2차대전은 1942년 중반 이후부터 종전까지 일본의 무차별 폭격 등으로 단 3년 동안 태평양 전선에서만 230만여 명, 종전(終戰) 당해인 45년 3월까지 무려 3,5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사상자를 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적, 물질 피해가 발생한 전쟁으로 기록되었다.⁴⁰⁾⁴¹⁾ 미증유의 이 끔찍한 전쟁이후에도 일본은 같은 전범국이 지만 처절한 반성을 통해 국가 개조를 이룬 독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망스러운 행보를 계속해왔다. 만약 일본이 과거의 반성이나 성찰 없이 또다시 탐욕과 침략의 야욕을 드러낸다면, ‘삼한당’이라는 비애(悲哀)로운 이름의 ‘집’은 후천 개벽기에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원상생으로서 ‘삼한당’이라는 슬픈 이름을 떨쳐 낼 것인지 기어이 켜켜이 한이 쌓여 ‘비탄과 슬픔’ 위에 지어진 집을 부여안고 갈 것인지, 부디 일본이 전자(前者)의 길을 가기를 바랄 뿐이다.

증산의 통찰은 늘 통시적, 공시적으로 시대를 관통한다. 어쩌면 삼한은 일제강점기 즈음에 모두 풀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본은 삼한당에 갇힌 채 ‘한을 푸는’ 시도 또는 지속적으로 한을 쌓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존 시대를 맞아 해원상생을 주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다. “모사재천(謀事在天) 성사재인(成事在人)”⁴²⁾이라는 증산의 가르침을 되새긴다면, 일본은 더 이상 상국이 아니라 상생으로서, 스스로 진정 ‘가까운 이웃’으로 거듭나기 위해 철저히 반성하고 실질

고 돌아와서 그대로 상제께 아뢰니 상제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일본의 지기가 강렬하므로 그 민족성이 탐욕과 침략성이 강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일삼느니라. 옛적부터 우리나라는 그들의 침해를 받아 왔노라. 이제 그 지기를 뽑아야 저희의 살림이 분주하게 되어 남을 넘볼 겨를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참조: 미국의 인류학자 루스 베니딕트는 저서 『국화와 칼』에서, 일본인들은 겉으로는 겸손하고 예의 바르지만 마음 속에는 무서운 칼을 지니고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 왕실의 상징인 국화는 아름다움과 평화로운 질서를 의미하는 반면 칼은 파괴적인 폭력과 피의 전쟁을 뜻한다.

40) 정복규, 「태평양 전쟁을 재조명하라」, 《새만금일보》 2019. 9. 5.

41) 《WIKIPEDIA》, 「World War II casualties」 (https://en.wikipedia.org/wiki/World_War_II_casualties, 2023. 7. 30. 검색).

42) 『전경』, 교법 3장 35절,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니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라. 또 너희가 아무리 죽고자 하여도 죽지 못할 것이요 내가 놓아주어야 죽느니라.”

적인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삼한당에서 벗어나는 방법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2장, 16세기 국제 정세와 임진왜란전후 상황의 기술에서, 다양한 학자들의 관점을 취합하여 논증을 뒷받침하는 귀납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학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식민사관을 벗어나지 못한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부 기술(記述)은 잠정적이며, 인젠가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뿐만아니라 증산연구와 관련해서, 향후 삼한과 삼한당의 심층 연구가 지속되어 좀 더 다양한 해석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의 계기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본의 도발과 국내 친일파의 발호의 인과를 삼한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궁금증과 기대에서 출발하였다. 비록 선행연구나 관련 사료는 다소 미흡했으나, 이 연구에서, 삼한을 문명사적 측면에서 조망해보고, 삼한당이 지닌 중층적 의미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나름대로 작은 소득이라 여기고 싶다.

【참고문헌】

- 『전경』 13판,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국조보감』 권30, 선조 24년.
- 『선조실록』
- 김성수, 『상생의 길』, 창간호,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4.
- 김일환, 「세종대 대마도정벌의 군사적 전개과정」,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1-2, 2012.
- 김정신, 「16세기말 성리학 이해와 현실인식: 대일의교를 둘러싼 허성과 김성일의 갈등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3, 2000.
- 김주미, 「해 속의 삼족오를 통해 본 ‘3’의 의미 고찰: ‘해 속의 삼족오’와 한국 사상에 반영된 천지인 합일 사상」, 『고조선단군학』 25, 2011.
- 김진영, 「한류를 통해 본 소중화(小中華)에서 대중화(大中華)로의 노정」, 『대순종학』 2, 2022.
- 김현영, 「16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왜란 전후 조선사회의 변화」, 『한국사학사학보』 26, 2012.
- 박성대, 「일제 강점기 한반도의 공간훼손과 풍수정치: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56, 2020.
- 박희봉, 「임진왜란에 관한 새로운 증거와 의미: 참전 일본군 및 손실자수」, 『국가정책연구』 28-4, 2014.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월보」, 5월호, 2023.
- 손승철, 「『해동제국기』를 통해 본 15세기 조선지식인의 동아시아관: 약탈의 시대에서 공존, 공생의 시대로」, 『사림』 41, 2012.
- 윤여석, 「임진왜란 전후 대중관계의 정립과 의주의 위상」, 『지역과 역사』 41, 2017.
- 이용조·우중윤, 「청주 소로리 법씨’의 오늘과 내일: 소로분교를 박물관으로」, 『박물관학보』 38, 2020.
- 이종화·윤현식, 「노량해전의 조명연합수군 규모」, 『군사』 126, 2023.

- 장순순, 「조선전기 통신사행과 대일외교(對日外交)의 특징」, 『한일관계사 연구』 56, 2017.
- 전성기, 「치수(治水)로 백성을 구한 우임금」, 『대순회보』 191,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7.
- 정구복, 「임진왜란의 역사적 의미: 임진왜란에 대한 한·일 양국의 역사 인식」,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 2, 2005.
- 주노중, 「조선의 대마도통치 전략과 일본과의 평화외교의 전략 고찰」, 『동북아경제연구』 26-4, 2014.
- 한문중, 「조선전기 일본인의 향화(向化)와 정착」, 『동양학』 68, 2017.
- 한국갤럽, 「갤럽리포트, 한국인 좋아하는 40가지[사람편]: 2004/ 2014/ 2019년 비교」, 2019.
- 「Q&A 게시판: 삼한당(三恨堂)」, 『대순회보』 78,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7.
- Mariagrazia Di Giuseppe and John Perry, “The Hierarchy of Defense Mechanisms: Assessing Defensive Functioning With the Defense Mechanisms Rating Scales Q-Sort,” *Frontiers in Psychology* 12, 2021.
- Thomas Talhelm and Alexander S. English, “Historically rice-farming societies have tighter social norms in China and worldwide,” 117-33, 2020.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9월호, 2023.
- 정복규, 「태평양 전쟁을 재조명하라」, 《새만금일보》 2019. 9. 5.
- 《문화재청》 www.heritage.go.kr
- 《<http://contents.nahf.or.kr/item/level.do?itemId=eedah>》 (2023년 07. 30. 접속)
- 《동북아역사넷》 <http://contents.nahf.or.kr>
- 《소로리법씨 홈페이지》 <https://www.cheongju.go.kr>
-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
-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
- 《시사저널》 <https://www.sisajournal.com>

■ Abstract

**The Imjin War (1592-1598) and the Three
Resentments (三恨) of Japan**

Kim Jin-young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Global Culture & Content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Canonical Scripture depicts Jeungshan discussing the three resentments brought upon Joseon by Japan to his disciples. The first resentment refers to the Japanese army's failure to enter Seoul, while the second resentment represents the large-scale loss of innocent lives. The third resentment involves the teaching of rice planting techniques.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Daesoon Jinrihoe, in the process of forcibly annexing the Korean Empire, Japan resolved the first resentment. Despite their failure to achieve a complete occupation of Joseon(Korea) during the Imjin War, Japan was able to establish colonial rule without inflicting significant sacrifices, thus resolving the second resentment. In the teachings of Daesoon Truth, the subject of resentment extends beyond the common notion that it primarily includes the victims. It encompasses not only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but also humans, divine beings, and even animals, as agents responsible for the harmony and operation of the heaven and earth. This reflects Jeungshan's

inclusive and comprehensive perspective as the presider governing the harmony of all things.

The third resentment is examined from a civilization–historical perspective, specifically in relation to rice farming. Japan introduced the practice of cultivating rice in a separate location before transplanting it to the main field, known as the young rice planting method, to Joseon. This unintentionally increased Korea’s agricultural productivity without achieving Japan’s invasion goals. Broadly speaking, rice farming served as a catalyst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civilization, driving population growth, urbanization,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as well as cultural and intellectual advancements. In inadvertently benefiting the ‘enemy’ by transferring advanced agricultural techniques from the birthplace of rice farming, Japan caused a result that was contrary to its original intentions.

Ultimately, severe famine during the three–year Japanese colonial period led to the resolution of Japan’s third resentment on the land of Joseon.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s before and after the Imjin War and analyzes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existing Three Resentments. Additionally, it explores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Three Resentments from a civilizational perspective. Interpreting the term, ‘the set of Three Resentments,’ as the House of Three Resentments suggests the potential for a layered meaning inherent in this designation.

Keywords: Imjin War, Three Resentments, the set of Three Resentments, Joseon, Japan, Jeungsan, The Canonical Scripture